

2023

#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2023

##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2023

#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textured surface. It is decorated with various elements: clusters of dark green leaves in the top-left and bottom-left corners; a cluster of dark green leaves in the top-right corner; several small white daisy-like flowers scattered across the top; a single white dove in flight on the right side; and several individual dark green leaves scattered across the left and bottom areas.

#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23

#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 서구의 심벌



### [Symbol Mark]

본 심벌마크는 사람과 만남의 “장”을 연결해주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구의 상징물인 까치와 인천의 어질 仁자를 모티브로 하여,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함과 동시에 마을주민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져 화합함으로써, 선진 서구의 건설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기상을 표현하고 있음.

## 서구의 상징물

鳥



구 조 : 까치

순결과 기쁨

花



구 화 : 국화

정조함과 고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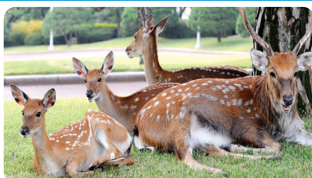
木



구 목 : 은행나무

진실과 강인한 의지

獸



구 동물 : 사슴

평화와 사랑

# 서구 구민의 노래

조 선 희 작사

윤 영 진 작곡

Moderato (경쾌하게)



1. 원 - 적 산 구 비 마 다 치 솟 는 정 기  
2. 새 - 롭 게 설 계 하 는 내 일 이 있 어  
3. 조 - 상 의 얼 이 있 전 통 을 이 어



높 - 다 란 하 늘 위 에 풍 요 를 열 고  
누 - 리 엔 동 이 트 는 아 침 을 열 고  
어 - 른 의 맥 을 따 가 훈 을 심 고



서 - 해 의 힘 찬 슬 기 야 망 을 - 퍼 는  
이 - 마 을 저 사 람 이 한 테 어 - 울 려  
태 - 양 이 타 오 르 는 후 손 만 - 대 에



축 북 이 뿌 리 내 린 눈 부 신 터 전 아 -  
즐 거 들 이 도 와 가 마 마 음 되 네 아 -  
알 뜰 한 손 길 타 고 행 복 이 오 내 아 -



아 우 리 서 구 회 망 의 낙 원  
아 우 리 서 구 사 랑 의 가 족  
아 우 리 서 구 약 진 의 고 장



가 손 꾸 어 빛 내 가 떠 다 저 나 가 세  
대 잡 아 어 개 깨 걸 며 피 저 나 가 세  
          망 의 불 밝 혀 키 워 나 가 세

## 발간사





### “인천 서구 우리 이웃의 이야기, 구민백일장”

구민의 문예창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구민백일장이 올해로 제2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구민백일장은 구민 누구나 글을 쓰고 읽어보며 문학적인 역량을 표현하거나 글쓰기의 여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된 행사입니다.

2023년 10월~11월 한 달간 우산, 보름달, 회화나무, 마술 시제로 구민 여러분의 작품을 온라인, 우편으로 만나보았고 각자 개성 있는 작품을 보면서 문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 유승현(어린이부), 이도현(청소년부), 엄기혁(일반부) 3명 외 모든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리며 이번 행사에서 나의 글, 내 생각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며 작품을 위해 고뇌하신 참가자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참가해서 만들어주신 구민백일장 행사를 통해 우리는 모두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학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이 행사는 구민 여러분들이 참가해주시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작품집을 만나는 또 다른 서구민께서 보시며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느끼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 구민백일장 행사에 관심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인천서구문화원은 구민백일장 행사를 통해 누구나 문예창작 시간을 가지며 문학적인 역량을 뿜낼 수 있는 나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행사로 개최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 군 섭

## 축 사



### “문학적인 표현력과 상상력의 장 서구 구민백일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예창작이라는 창조적 활동과 서구민의 생각이 더해지는 구민백일장은 스스로가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한 귀한 작품을 출품해주셨고 무엇보다 서구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백일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제28회 구민백일장에 출품된 작품을 모아 발간한 우수작품집을 통해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고뇌의 흔적을 함께 나누면 개인의 행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서구에 남아, 누구나 문학의 꿈과 끼를 발현하는 자랑스러운 인천 서구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민백일장에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작품 심사로 애써주신 심사위원님, 인천서구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3년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으로 여러분의 재능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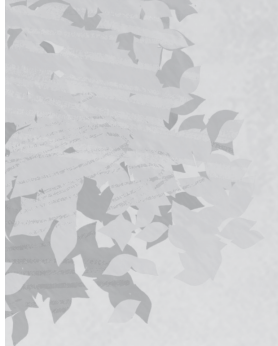
## 축 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고선희입니다.

서구 인구가 60만을 넘어 전국 자치구 중 괄목할 만한 자리를 차지한 2023년, 자랑스러운 구민 여러분의 감성과 생각이 담긴『제28회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백일장 행사가 오랜 시간 이어져 올 수 있게 소중한 작품들을 투고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깊은 울림을 안겨준 수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글이 주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대체로 말은 앞에서 가고, 생각은 그 뒤를 따르며, 글은 맨 뒤에서 세심하게 살피며 걸어가기에 그렇습니다.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늘 자신과 세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작품집에 수록한 구민 여러분들의 시와 수필에도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에 우리 서구가 점점 살기 좋은 도시로 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분명 달라집니다. 진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이번 작품집은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특히, 글쓰기의 즐거움을 이미 알아차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의 참여를 보고 있노라면, 서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듯 행복해집니다.

끝으로,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행사가 오랜 시간 단단하게 이어져 올 수 있게 수고해주시는 서구문화원 정균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고 글이 주는 힘을 믿는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고 선 희**



# Contents

## 목차

심사평(인천예총 문인협회장 정경해)

14p



### 어린이

인천검단초등학교 4학년 5반

유승현

우산 잡고 엄마손 잡고

17p

### 청소년

인천루원중학교 1학년 2반

이도현

위로를 도와주는 우산

18p

### 일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엄기혁

동행

19~21p



### 어린이

인천 가정초등학교 5학년 4반

김희준

보름달 유성이

22p

인천가현초등학교 5학년 3반

김연희

비를 위한 놀이공원

23p

### 청소년

인천검단중학교 1학년 3반

유채린

나비나무

24p

인천가현중학교 3학년 3반

송연지

상상을 현실로

25p

### 일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이환웅

부러진 우산

26~28p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김보미

우산

29p



어린이	인천가현초등학교 2학년 7반	박소원	마술 같은 체육대회	30p
	인천당하초등학교 1학년 3반	김지우	엄마를 낮게 하는 마술	31p
	인천가현초등학교 6학년 3반	최한결	마술 같은 글	32p
청소년	인천제물포중학교 2학년 5반	방지운	우산이 가져온 따뜻한 하루	33p
	인천이음중학교 1학년 10반	이소율	세상에서 가장 가벼워질 우산	34~35p
일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이찬희	비 오는 날의 그리움	36~38p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이애영	그저 너이고 싶은 마음	39~40p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동	노희상	우산과 휴머니즘	41~43p



어린이	인천가원초등학교 3학년 6반	김민서	늙어도 젊어 보인 회화나무	44p
	인천가정초등학교 4학년 3반	김하울	우산아 괜찮아	45p
	인천가정초등학교 5학년 3반	김동환	내가 친구들과 친해지는 마술	46p
	인천가현초등학교 6학년 6반	이지우	보름달...?	47p
청소년	인천신현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양하연	월광	48p
	서인천고등학교 1학년 12반	강서진	보름달	49p
	인천가현중학교 1학년 4반	박서현	실패는 경험일 뿐	50p
일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이민	엄마 우산	51~52p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유순자	내맘속에 마술	53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임은정	따뜻한 우산	54~56p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오미선	아버지와 검정우산	57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강근원	추석(秋夕)	58~59p

## 심사평 (인천예총 문인협회장 정경해)

### “제28회 서구 구민백일장 어린이부와 일반부 응모작 수준 높은 작품 많아”



2023년 제28회 서구 구민백일장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중 어린이부와 일반부에 좋은 작품이 많이 응모되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선정 편 수가 정해져 있어 수상권에 넣을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백일장은 시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데 백일장 시제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제목으로 정해 글을 쓴다거나 산문과 운문의 차이점도 모른 채 모호하게 글을 쓴 작품은 수상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응모작이 가장 많은 어린이부의 작품 중 운문은 상상력이 거침없고 활달해서 심사하는 내내 심사위원을 즐겁게 했다. 통통 튀는 표현력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이 많아 시각적, 청각적으로 표현이 재미있어 글을 읽는 내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린이부 대상 수상작 「우산 잡고 엄마 손 잡고」를 비롯해 선정된 작품들이 대체로 어린이다운 생각과 느낌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신선했다.

청소년부는 작품 수가 적어 아쉬웠지만, 주제가 확실하고 상상력이 풍부해 작품을 선정하기에 무리가 없었다. 대상작인 운문 「위로를 도와주는 우산」은 발상이 신선하여 심사위원 모두 이의가 없었다.



일반부의 많은 응모가 반가운 것은 그만큼 문학이 일반 시민과 가까워졌다는 증거다. 일반부는 운문과 산문이 고르게 작품이 들어왔다. 산문에 좋은 작품들이 많았지만 수상 편 수가 한정되어 선 안에 들지 못한 것이 있어 아쉬웠다.

대상으로 선정된 산문 「동행」은 아버지와 아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감동을 준다. 평소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는 아들, 비 오는 날이면 아버지에게 우산을 가져다주는 일이 싫었지만 나이 들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야원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전하는 글로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손색없었다.

수상자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며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다시 도전하시어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정 경 해  
김 현 주  
배 천 분  
유 영 애

2023

#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 우산 잡고 엄마손 잡고

인천검단초등학교 4학년 5반 | 유승현

투둑투둑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고  
 갑자기 오는 비에  
 발을 동동  
 하교길 엄마 기다리는 아이들  
 하나 둘 우산을 씌워 사라지고  
 나 혼자 우산 없이  
 내리는 비에 팬스레  
 빗물을 툭툭  
 눈물이 똑똑  
 비인지 눈물인지  
 조금은 속상한 마음에  
 우산 속 사라지는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저 멀리서  
 우산을 쓰고 들고 오는  
 엄마모습에

온통 검정으로 보이던 우산이  
 엄마 손에 무지개빛깔 우산으로  
 보이네  
 마치 우산이  
 엄마 사랑인 것 같아 마음이 둥실  
 둥실 떠올랐다  
 비와 함께 내 맘에 내리는 것 같아  
 우산 잡고 엄마손 잡고  
 신나게 흔들흔들



| 청소년부 |

## 위로를 도와주는 우산

인천루원중학교 1학년 2반 | 이도현

위로를 도와주는 우산  
구름이 슬픈 일로  
가득 차서 몸이  
무거워졌을 때  
구름은 참지 못해  
결국 눈물을 쏟는다.  
가끔은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너무 슬플 때는  
자신이 서러운 만큼  
울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우산을 챙긴다.  
구름의 눈물을  
기꺼이 받아주기  
위해서.

우산에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나에게 구름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우산에게

## 동행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 엄기혁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퇴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우산을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집에서 아버지 직장까지는 크게 멀지 않았다. 아들이고 초등 고학년이었던 나는 무뚝뚝하고 완고한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이 많이 불편했다. 일을 마친 어른들이 삼삼오오 회사 정문으로 나오고 있었다.

저 멀리 아버지가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흠칫 나를 보시더니 천천히 달려오셨다. “우리 아들이야. 허허”

아버지는 같이 나오신 동료분들에게 나를 소개하며 우산을 펼치셨다.

“야, 아들이 착하네.” “안녕하세요?” 칭찬하시는 아저씨들을 멍쩍게 바라보며 나는 꾸벅 인사했다. 아저씨들도 우산을 챙겨온 가족들과 함께 저만치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두세 걸음 정도 앞장서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집까지는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시간이 멈춘 것 마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오래전 일이라 아버지와 내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할 수는 없었다. 아마 서로 아무 말 없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들인 내가 앞으로 쪽 우산 심부름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생각이 난다. 사춘기 누나들은 아들인 나보다 더 아버지가 어려웠을 것이다. 아버지는 고집 세고 성실한 가장이셨다. 다른 아버지들처럼 술을 드시고 고주망태가 되는 일은 없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담배도 한 번에 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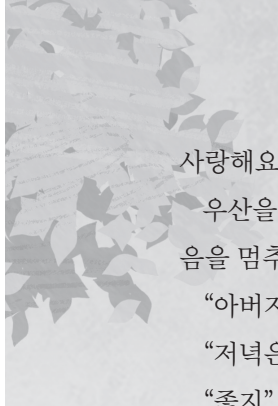
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술 취해 부인이나 자식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이웃 아저씨를 볼 때면 그 집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온전한 정신과 무뚝뚝한 말투로 정직만을 강조하셨으니 말이다.

‘비가 내리려거든 아침부터 내려라’ 내가 날씨에게 바라는 것은 소풍날 외에 비는 아침부터 내리는 것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면 아버지가 우산을 챙겨 가시기 때문이다. 남자 체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부터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어도 아버지는 우산을 챙겨 가지지 않았다. 당시 아버지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저녁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우산 들고 마중 나올 아들을 기대하며 그런 것일까.

두 딸을 낳고 내심 기대했던 아들이 생기고 아버지는 동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른다. 솔직히 나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나들보다 좀 더 귀하게 자랐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나는 무뚝뚝하고 고집센 아버지와의 동행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피를 쓰고 한 것인가.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나도 나이 50이 넘고 아버지는 증손자까지 볼 연세가 되었다.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 두고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다. 아버지는 지금도 사업장에서 걸어서 귀가를 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우산 들고 마중 나가는 일은 오래전에 끝났다. 무뚝뚝한 아버지와의 대화도 가끔 안부 전화하는 일이 아니면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올곧음은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 세월을 보낸 지금 우리네 부모들처럼 아버지도 그렇게 당신의 부모님을 통해 익숙해졌을 것이다. 늘 타인에게 인사성 좋고 이웃을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은 집안에서 가족에게 대하는 근엄하고 무뚝뚝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것이 옳은 가장의 모습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어느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나는 웬지 모를 슬픔이 느껴졌다. 이제 내 우산 만으로 두 사람이 써도 될 만큼 아버지가 많이 야윈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무뚝뚝한 중년의 아저씨로 성장하여 아버지께 사랑한다 말 한번 못했지만, 속 마음은 늘 ‘아버지



사랑해요’를 하고 있었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야원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큰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 보셨다. “응?”

“저녁은 우럭탕 먹을까요? 아버지 우럭탕 좋아하시잖아요?”

“좋지”

나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고 그렇게 두 사람은 비오는 길을 동행하고 있었다.



| 어린이부 |

## 보름달 유성이

인천가정초등학교 5학년 4반 | 김희준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니  
나와 눈맞춤하는 보름달

오늘따라 빨강게 타오르는 걸 보니  
쫄면을 먹고 후후 햇바닥을 내밀던  
유성이가 생각난다

키도 크고 발도 크고 손도 크고  
얼굴도 큰  
보름달 같은 유성이

험상궂게 생겼지만  
내가 장난을 걸어도 잘 받아주고  
내가 힘들 때 기대도 괜찮다고 하는  
정말 착한 동생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덩치도 크고 마음도 훨씬 큰  
보름달 같은 유성이

나는 보름달을 보면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유성이가 생각난다

## 비를 위한 놀이공원

인천가현초등학교 5학년 3반 | 김연희

우산은  
비를 위한  
놀이공원이다

톡톡톡  
방방이처럼  
튀기는 바이킹

우산을  
접었다 펴면  
팡팡 디스코팡팡

우산을  
빙글빙글 돌리면  
멋진 회전목마

우산을  
접으면  
놀이공원 운행이  
끝난다.



| 청소년부 |

## 나비나무

인천검단중학교 1학년 3반 | 유채린

길다란 나무 움튼 새싹 사이로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와  
이곳저곳 눈치를 보다  
비로소 나비가 되어  
살포시 내려앉는다  
찰나의 순간  
한편에는 연노랑 나비가  
나무의 허리를  
찰싹찰싹 때려대고  
한편에는 연노랑 나비가  
후둑후둑 떨어져  
두툼한 꽃이불을 만드네  
염주열매 차르륵차르륵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놀란 연노랑 나비가  
바람결에 후르르 흩어지네

내년에도 또 그 후 내년에도  
나비나무는 늘 그 자리에  
또 같은 자리에서  
나비를 기다리겠지  
머리가 땅에 닿는 줄도 모르고...

## 상상을 현실로

인천가현중학교 3학년 3반 | 송연지

가끔은  
하늘에서 우릴 보며 미소 짓는  
너를 상상해

우리 가족에게 마법처럼  
나타난 너는  
우리 가족 품에서 마법같이  
떠나버렸어

짓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준 너

너랑 하고싶은 게  
딱 차다 못해 흘러넘쳐서

가끔은  
하늘에서 너와 하고 싶던 걸  
같이 하는  
마술같은 상상을 해

마법은  
상상으로 끝나지만



| 일반부 |

## 부러진 우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 이환웅

오전 열시. 퇴근하고 들어서는 현관 앞에 잠시 시선이 머문다. 익숙했던 둥근 공간에 무언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다. 크고 작은 자전거 바퀴들과 여러 개의 공들은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 사이 벽 모퉁이에 안 보이던 우산 하나가 힘없이 벽에 기대어 있다. 원래 자리로 보내고자 우산을 들어 건강 상태를 확인해본다. 온몸을 펼치면 멋진 동그라미를 만들어내던, 그 동그라미 안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던 우산. 손잡이를 잡고 힘 있게 몸을 일으켜 세운다.

비가 오는 날이면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엄마는 내리는 빗줄기 따라 여기저기 비설거지를 하셨고, 아빠는 사립문을 지나 잔걸음으로 논밭으로 향하셨다. 세상 바쁜 가운데서도 나는 커다란 슬리퍼에 발을 넣고 기다렸던 듯이 우산을 펼쳐 빗속으로 들어갔다. 후두두 튕겨내는 빗소리가 커질수록 그 아래 웅크려 앉은 내 심장은 더욱 신이 나 있었다. 바깥의 하늘을 만져볼 수는 없었지만, 펼쳐진 머리 위의 작은 하늘은 나만의 세상이었다. 제아무리 뽀족한 빗줄기가 세차게 공격해 와도 동그란 하늘을 뚫을 수는 없었다.

비 내리는 하늘 아래 펼쳐진 맑고 고요한 하늘. 얇은 경계를 맞대고 흐림과 맑음, 분주함과 평온함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부딪치는 공간. 그런 대단함을 느꼈을 나이는 아니지만 분명 그러했기에, 빗속의 작고 동그란 공간에서 아이의 동그런 마음도 여물었으리라 돌이켜본다.



기다란 막대기를 잡고 힘을 준다. 멧진 동그라미를 기대하고 펼쳐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살들이 부러져 힘없이 축 처지고 만다. 작은 하늘을 받치던 대들보들이 무너진 것이다. 한 방울 한 방울 튕겨내며 버텼을 모습과 매서운 바람에도 찢기지 않으려 견뎌낸 모습이 처진 우산살 끝에 매달려 있다. 매달린 걱정의 모습을 한참을 바라본다. 작고 무더진 이 끄트머리에 이렇게 오랜 눈길을 가뒀던 적이 있었던가. 어쩌면 정말 필요했던 순간마저도 바라보는 시간은 터무니없이 적었으리라. 정작 맑은 날, 화창함과 눈부심은 단 한 번 보지 못했을 가여움이 빗방울 윤슬이 되어 내 안으로 스며든다. 구부러진 살대를 길게 당겨 가장 동그라미에 가까운 모양을 만들어준다. 비록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둥근 하늘을 떠올리며 손끝에 정성을 담아 펴고 또 펴본다. 그러다 문득, 가장 맑고 밝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 햇별이 가득한 곳을 찾아간다. 넓은 정원에 다다르니 상처를 찾아 스며드는 연고처럼 부러진 살대에 기분 좋은 햇살과 바람이 유난히 반짝인다.

비 오지 않는 날에 활짝 펼쳐진 둥글지 못한 우산을 보고 있으니 조화롭지 못하단 생각이 들었다. 문득 조화를 떠올린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고 조화일까. 오히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있었기에 조화로운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제자리에 있던 우산처럼 부모님도 그러하셨다. 내 곁에서 언제나 조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찾던, 찾지 않던 그 모든 순간까지도. 그로 인해 어떠한 비가 내려도 활짝 펼쳐진 하늘 아래에서는 걱정이 없었다. 모진 빗방울을 수없이 튕겨내면서 만들어낸 평온하고 둥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야 물끄러미 몸을 꺼내어 바라본다. 화창하기만 했던 시간의 경계엔 닳고 해지고 살대가 부러진 우산만이 남아있다. 맑았던 시절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풍파에 휘청일 땐 어느새 다가와 내 하늘이 되어주던 우산.



화창한 오늘. 부러진 살대에 걸린 햇빛이 유난히 반짝여서 좋다. 아주 느긋하게, 화창한 날의 우산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한참을 만끽한다. 휴대전화를 타고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까지 유난히 반짝인다. 비록 닳고 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맑은 날처럼, 맑은 날에만 활짝 펼쳐지길 바라. 흐리던 날에 보았던 것들은 짙한 별에 다 말리고, 완벽한 동그라미는 아닐지라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굽은 동그라미로 남아주길. 언제까지나 내 곁에 머무르는 우산이 되길. 오랜 생각에 머무는 동안 ‘아빠’를 외치며 뛰어오는 동그라미가 보인다. 어서 오렴. 너의 둥근 하늘 아래로.

## 우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 김보미

고개를 들어 당신을 불러보지만 야속하게도 대답 대신 소나기가 내려왔다. 여름이 오면 손끝을 물들이던 봉숭아꽃의 씨앗처럼 팻 터지며 이마 위로 낮은 지붕이 섰다. 주인을 닮아 낡고 휘었지만 그럼에도 비바람 아래에서 나만큼은 젖지 않았다. 팔을 뻗으니 낮아진 하늘에 버석한 감촉으로 손이 닿는다. 손톱 끝에 위태롭게 남아있는 봉숭아물은 마치 기우는 초승달과 같다. 손잡이를 더욱 세게 쥐었다. 차고 단단한 것이 당신의 손과 같았다. 나는 분명 우산 아래에 있는데 발등이 뚝뚝 젖어갔다.



| 어린이부 |

## 마술 같은 체육대회

인천가현초등학교 2학년 7반 | 박소원

쑹쑹

빨주노초파남보

마술사의 손수건처럼

리듬 타는 응원 깃발

다다다다

마술사의 비둘기처럼

빨리 달리는 우리 백팀

툽

동전이 떨어지는 것같이

태권도 사부님이 넘어지는 것처럼

마술사도 실수를 할까?

개인 달리기 시합

뒤에서 달리고 있는데

장애물을 통과할 때

앞에 있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마술

마술 같은 승리~

## 엄마를 낮게 하는 마술

인천당하초등학교 1학년 3반 | 김지우

나는 마술이 신기해서 좋다. 마술사가 나와 연기와 함께 무언가 없어지고, 생겨나고 할때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속임수를 찾을 수 없다. 너무 신기하다. 나도 마술을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방과후 시간 마술 수업을 듣고 싶어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수업이 없어졌다. “다른 친구들은 마술을 안 좋아하나봐...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

엄마랑 학교 가는 길에 엄마가 과학 마술공연을 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펄럭이는 깃발을 가리켰다. 나는 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에게 바로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맨 앞자리에서 마술사 아저씨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오고, 빛이 번쩍 거릴때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역시 마술은 재미있었다. 신기한 공연이 계속됐다. 엄마가 공연을 보러갈 때는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공연을 보고 나와서는 아프다는 말을 안한다. 마술사 아저씨가 엄마를 안 아프게 하는 마술을 부렸나 보다.



| 어린이부 |

## 마술 같은 글

인천가현초등학교 6학년 3반 | 최한결

하얀색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어느새 보면 꼭  
채워져 있지

글만 썼을 뿐인데  
마술처럼 아름다워졌어

종이 위 마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아름다운 마술을 부려주길

## 우산이 가져온 따뜻한 하루

인천제물포중학교 2학년 5반 | 방지운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음식점에  
비가 내린다  
자리를 뜨려던 손님들은  
급히 우산을 챙기고는  
떨랑하는 조그만 종소리와 함께  
펼럭하며 우산을 편다  
문이 잠시 열릴때면  
억센 빗소리가 들린다

화려한 전광판이 밝게 빛나는  
편의점에 비가 내린다  
우산이 없어 뛰어가던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와서는  
과자와 음료 몇 개 그리고 우산을  
계산대에 올린다  
가쁜 숨을 내쉬며 카드를 내밀고서  
비닐봉지와 우산을 챙겨 편의점을  
나선다

전 부치는 소리가 들리는  
아파트에도 비가 내린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가 보인다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전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 때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한 사람은 따뜻한 떡볶이를 들고서  
한 사람은 과자와 음료를 들고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모두가 따뜻한 하루를 보냈다



| 청소년부 |

## 세상에서 가장 가벼워질 우산

인천이음중학교 1학년 10반 | 이소율

지루했던 수업 시간들이 끝나고 난 서둘러 교실을 나섰다. 오로지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우산을 빼어들고 난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창문에서 내가 마주한 건 하룻길의 기쁨이 아닌 바닥을 뚫을 듯 매섭게 쏟아지는 빗방울이었다.

“하....”

무거운 우산을 드느라 아파오는 두 팔과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길 빗방울로 생길 불쾌함이 떠오르자 절로 한숨이 튀어나왔다. 귀찮은 마음으로 우산을 피려는 순간 내 옆으로 분명 알지만 낯설은 얼굴이 보였다. 아, 그 애였다. 반에 한 명쯤은 꼭 있는 애. 조용하고 소심하고, 때론 바보 같기도 한 애. 바로 그런 애였다. 왜인지 난 문득 그냥 그 애를 뻔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애는 빈손으로 빗물만이 존재하는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 우산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든 순간 내 머릿속에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내 가방 속에는 접이식 우산이 하나 더 들어있었다. 나에겐 아직 우산을 꺼지 않아 비어있는 한 손이 있었기에 그 애에게 우산을 건네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난, 가방 속의 우산을 향해 손을 뻗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가방에서 꺼내어 그 애에게 우산을 건네는 그 행동이,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 있었다. 주기 싫은 것도, 그 애가 싫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우산을 꺼내지도 건네지도 않고선 그 애가 어디선가 우산을 꺼내 쓰고 가기를, 난



정말 이상하게도 그저 바라기만 했다.

“엇”

그 애가 뒤를 돌아보았다. 짧게 스친 눈에 어쩐지 난 마음이 찢려서 서둘러 우산을 펴 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곤 무언가가 부끄러워 숙인 고개 끝에서 닿은 시선엔 비를 피해 급한 발걸음을 내는 그 애가 잠깐 스치듯 지나갔다. 아아, 그때 서야 난 깨달았다.

바보 같은 건, 내가 부끄러워하던 건 모두 다 나왔던 거다. 나에겐 우산을 건넬 이유도, 건네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냥 난 못 되게 군 사람인 것이다. 만약 내 친한 친구였다면 난 지금처럼 머뭇거렸을까? 그냥 그 애라서 쉽사리 주지 못 했던 것이다. 우산을 건네주는 게 부끄러워서보다 더 미운 대답이었다. 그 애에게 우산 하나 건네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그래. 이 마음은, 내 마음은 저 물웅덩이보다 작았나 보다. 내 마음은 이 우산보다 더, 훨씬 더 비좁았나 보다. 그 애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나 스스로에겐 실망했다. 아직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 애를 보다가 난 한가지 결심을 했다. 그렇게나 무겁다던 그 우산을 들고 난 그 애에게 뛰어갔다. 아무리 무거워도 둘이서 들면 한없이 가벼워지겠지. 점점 바닥으로 꺼질 것만 같던 발걸음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어쩐지 오늘만큼은 아무리 옷이 젖어도 불쾌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떠오른다. 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벼워질 우산을 들고, 그 애에게 아주 가볍게, 뛰어간다.





| 일반부 |

## 비 오는 날의 그리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이찬희

“빵구야~ 빵구야~”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내 삼촌이 나를 부르던 애칭은 늘 ‘빵구’였다. 왜 그런 애칭으로 불렀는지 그 당시 어렸던 나는 몰랐다. 물론, 지금도 모르고 아마도 영원히 모를 일이다.

나를 ‘빵구’로 부르던 삼촌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공장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은 공장에 근무하시던, 소위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부르는 분을 부족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후 나 역시 모자란다는 표현 대신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삼촌이 어렸을 때 어떤 질병을 앓고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떤 질병이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삼촌은 6남매 중 장남이신 아빠가 모셨던 할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산 식구였다.

그런 삼촌이 내가 국민학교-나는 국민학교 세대이다-6학년이었을 때, 딱 한 번 학교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영락없이 비를 쫓딱 맞고 가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나에게 우산을 가져다주려고 학교를 찾아왔던 것이었다. 집안일로 바빠셨던 엄마가 당신이 갈 수 없으니 삼촌에게 대신 부탁을 하셨던 것이다.

‘뚝! 뚝!’ 수업 시간 중 교실 문 노크 소리가 들렸고 선생님이 여신 문틈으로 자연스레 나도, 반 아이들도 시선이 쏠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삼촌의 모습에 나는 적잖게 당황했다. “어떻게 오셨냐?”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 삼촌인데 우산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삼촌의 그 나지막한 목

소리가 나에겐 너무나도 크게 들렸다. 선생님께선 내게 밖으로 나가 보라 하셨고 그 좁은 문틈으로 보이던 삼촌의 초라한 모습은 반 친구들도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 삼촌에게서 우산을 획 낚아 채며 “왜 왔어!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우산을 받아 들고 교실로 들어왔을 때, 창가 자리여서 창밖을 내다보니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삼촌은 모처럼의 외출에 신난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삼촌은 문맹자였기에 집에서 운영하는 목장 외에는 외출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그냥 비 맞고 오게 내버려두지 그깟 우산이 뭐라고 왜 삼촌을 학교에 보냈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었다. 부족한 삼촌의 부끄러운 모습을 선생님과 친구들이 본 게 꼭꼭 숨기고 싶었던 나의 치부를 드러낸 것만 같아 너무나도 창피했다.

그런 삼촌은 몇 년 전부터 정신이 더 온전치 못하게 되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결혼으로 친정에서 떨어진 나는 삼촌을 찾아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예보에 없이 갑작스레 내린 비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건물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6학년 때의 그날이, 그날의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삼촌의 뒷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채 소나기를 맞이한 게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날은 왜 그날의 삼촌 모습이 떠올랐을까?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삼촌을 면회하러 갔고 오랜만에 본 너무나 변해버린 삼촌의 모습에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다. “삼촌~ 뽕구 왔어. 알아 보겠어?”라는 말에 “그럼~ 알지. 뽕구야~”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 하고 껍껍대며 울다만 나왔었다. 그날이 그렇게 삼촌과의 마지막 날이었다.

삼촌은 올해 초, 요양 병원에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차가운 모습으로 마주한 삼촌을 붙잡고 울며 처음으로 삼촌에게 내 마음을 소리내어 전했다. 삼촌을 부끄럽게 여겼던 그날의 일이 어른이 되고 나서야 너무나 후회되고 미안해서, 우산을 가져다줘서 삼촌 덕에 비를 맞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로 삼촌을 보내드렸다.

비가 내린다. 학원에 간 아이에게 우산을 가져다주러 가야겠다. 비가 오면 난 여전히 삼촌이 그립다.

## 그저 너이고 싶은 마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이애영

너의 몫이다.

네가 맞아야 할 비(雨)다.

너의 걸음으로, 네가 걸어 내야 할 어둠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떠나감을 만류하지 않기로 한다.

그 길을 못 걷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나의 사랑을 위해 작은 우산 안에 너를 가두는 것도 나의 몫일 리가 없다.

그저 온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온 나는,

묵묵한 마음으로 너의 시간을 지켜봐 온 나는,

사지를 잃을 것 같은 흑한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어둠의 터널과,

넘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 세상의 파고를

네가 되어 견디고 싶은 마음을 그저 주저할 뿐이다.

너를 너의 방식으로

너의 폭우를 이길 사람으로 키운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건 너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너를 향했던 우산을 걷는다.

고통을 피하는 걸음이 아니라

애정으로 시련을 기꺼이 걸은 걸음으로 다시 나를 껴안을

너를 만나기 위한 나의 자발적 헤어짐이다.

## 우산과 휴머니즘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동 | 노희상

지난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어떤 날은 폭우가 쏟아져 혹시나 아파트에 물이나 새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아뵐까!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그만 조치원 궁평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차 사람이 여럿 죽었다는 뉴스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 가까운 곳에 딸이 살고 있어서이다. 아무튼 기후변화의 여파가 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계기였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당혹할 때가 참 많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내릴 때 비가 퍼부으면 참 난감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배낭에 작은 접이 우산을 갖고 다닌다. 아내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일렀는데, 귀찮다고,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내게 전화를 해와 내가 들고 마중 나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의 사태에 직면했다.

주말에 검단 신도시의 먹자골목에서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를 퍼부었다.

‘설마 곧 그치겠지.’

그랬는데,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질 않는 것이 아닌가.

최대한 시간을 늘려 천천히 식사했지만, 빗줄기가 가늘어 질 뿐 여전히 비는 내렸다.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아내는 일일연속극 봐야 할 시간이라고 내게 눈총을 주었다.



오늘따라 승용차를 두고 걸어온 관계로 식당 문을 나가는 순간 비 맞은 생쥐가 될 참이었다. 이런 사태를 대략 난감이라 했던가?

그때, 키가 큰 식당 주인 남자가 우산 십여 개를 안고 들어와 이렇게 말했다.

“손님들,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지 않네요. 제가 급히 마트에 가서 우산을 몇 개 사 왔어요.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사용하시고 지나실 때 식당 앞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아내는 후유!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밖에 나오니 식당 앞에 우산꽃이가 있고, 두 개가 더 꽂혀 있었다.

그날 우리 부부는 주인의 따뜻한 배려로 비를 안 맞고 집에 올 수 있었다. 참 고마운 마음이고 고객 만족의 실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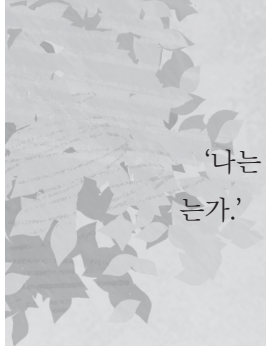
우리는 휴머니즘을 너무 크게만 인식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멀리 아프리카의 빈민 아동을 돕는 것만이 휴머니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본래 휴머니즘이란 인간을 돕는 배려와 인정의 실천이다. 그 인간은 일차적으로 내 부모 형제와 가족이요, 우리 이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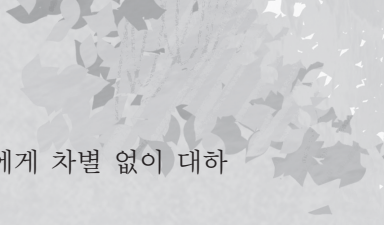
또 휴머니즘 실천 내용도 크거나 내용에 차등이 없다. 어느 것이나 같은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거액의 성금이나 쌀 포대를 내는 것이나 길을 잃고 헤매는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알고 길을 찾아드리는 것, 비를 피할 우산을 빌려주는 것,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차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에게 차비를 내주는 것도 휴머니즘이다.

나는 지금도 그 식당 앞을 지나면서 여전히 꽂혀 있는 십여 개의 우산을 본다. 이제 우기는 지났지만, 그 우산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머지않아 진눈깨비나 눈이 내리면 그 우산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귀한 선물 이 될 것이다.

우산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는 불행에 대한 준비성이요, 또 하나는 차별 없는 베품과 공유이다. 이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를 다시 돌아본다.



‘나는 얼마나 미래 세상에 준비된 사람이고, 남에게 차별 없이 대하  
는가.’







| 어린이부 |

## 늙어도 젊어 보인 회화나무

인천가원초등학교 3학년 6반 | 김민서

우리 할아버지는 70이어도 늙어 보이는데  
회화나무는 500살인데 너무 젊어 보여

또 어떻게 500살까지 살지?  
참 대단해!

우리 할아버지도 5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겨울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시는  
회화나무 할아버지  
참 신기해!

## 우산아 괜찮아

인천가정초등학교 4학년 3반 | 김하울

비오는 날 엄마 어깨가 축축해  
우산이 동생만 좋아하나봐  
동생한테만 기울어져있어

아빠를 보니 아빠 어깨도  
맛을랑 말랑 젖을랑 말랑  
비랑 밀당 중이야

나도 비 맞아도 되는데  
비 맞는 거 좋아하는데  
“우산아, 엄마 아빠 쪽으로 가도 돼”

엄마의 검은 외투를 울고  
아빠의 회색 바지는 눈물 범벅

우산은 말 안 듣는  
내 동생 같아



| 어린이부 |

## 내가 친구들과 친해지는 마술

인천가정초등학교 5학년 3반 | 김동환

새 학년이 되면 생기는 걱정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 떠오른 나만의  
필살기  
며칠 전 동영상으로 본 카드 마술

카드를 꺼내자 모여드는 친구들  
“동환아, 너 그걸로 마술 할 수  
있어?”

친구들이 카드 한 장을 고르고  
섞으면  
나는 마술사처럼 그 카드를  
맞혀야 하는데...  
틀려버렸네

“친구야, 네가 기운을 넣어줘야지!”  
친구와 함께 기운을 넣으니  
바로 성공

“나도 해 줘, 나도 해 줘!”  
친구들이 내 옆으로 모여든다

내년에는 또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 보름달...?

인천가현초등학교 6학년 6반 | 이지우

나는 보름달이 싫다

보름달을 생각하면  
보름달의 지름이 생각나고

지름을 생각하면  
원주가 생각나고

원주를 생각하면  
원이 생각나서

결국 원과 관련있는  
수학 과목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저 밝은 보름달처럼  
나의 수학 점수도  
밝게 빛날 날이 오길



| 청소년부 |

## 월광

인천신현여자중학교 3학년 1반 | 양하연

내가 흘린 눈물은  
쨍쨍한 태양을 식혀  
녹여버릴지니

네가 흘린 미소는  
어둠속에서 날 좀 더  
빛낼지니

달은  
언제나 우주와 함께  
너와  
나와 함께

언제나 사랑스럽다는 듯  
젖은 눈으로 가득 채워

만월은  
마침내 방랑하는  
나그네의 외투마저

사르르  
녹여버리겠지

## 보름달

서인천고등학교 1학년 12반 | 강서진

저 멀리 보이는 보름달 하나  
무엇이 슬픈지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반짝이며 빛나더랬다.  
회화나무 그제야 안심한 듯  
끝없는 나뭇잎을 낮추며

아무리 큰 우산으로 울음  
가리려 해도  
보름달의 슬픔 가릴 수 없구나.

그 자리에서 잠드니  
참 알 수 없는 광경이구나.

저 멀리 보이는 회화나무  
천천히 다가와  
끝없는 나뭇잎으로 보름달의 울음  
댄해주니

마술처럼 보름달의 울음  
그치더랬다.

보름달의 울음 그치는 순간  
보름달이 흘린 눈물들은

하늘에 박혀버렸고



| 청소년부 |

## 실패는 경험일 뿐

인천가현중학교 1학년 4반 | 박서현

요한 부르주아의  
'성공은 선행이 아니다'라는  
작품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수많은 도전을 하지만  
계속 실패를 반복합니다

우리들은 작은 불빛에 의지해  
다가가면 넘어지고 망하고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나아가면  
마치 마술 같이  
그 빛을 가지게 됩니다



## 엄마 우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이 민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낮익은 목소리와 빗소리가 알람 소리 대신 나를 깨워준다.

비가 내려 옷이 젖지는 않을까?

감기에 걸리진 않을까?

엄마의 걱정 가득 마음의 소리는 빗소리와 함께 합주처럼 들려오고,  
현관 앞에는 우산들이 나란히 각자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개성을 뽐내며 선택의 손길을 원하는 우산 후보들  
긴 다리와 넓은 어깨 자랑 하는 기호 1번 장 우산  
알록달록 예쁜 기호 2번 3단 우산  
빠른 시대에 발맞춘 기호 3번 자동 우산

각자 공약을 내 새우며 주인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선택받은 우산 후보는 웃으며 세상 밖으로 나가고  
선택받지 못한 우산 후보는 다시 신발장으로 들어간다.

문 앞 한 편 언제나 그 자리에 우산이 하나 더 보인다.  
항상 제자리에 있는 우산

다리가 길지도  
알록 달록 하지도  
자동기능도 없는 우산

익숙한 듯  
제자리 그 우산을 꺼내어 세상 밖으로 나간다.

마음의 비가 내릴 때  
가슴 속에 번개가 칠 때  
해가 찡찡 내려 눈을 못 뜰 때  
살포시 펴보는 엄마 우산을.

## 내맘속에 마술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유순자

믿고싶었다.  
화려한 언어  
어디까진가 예상하면서도  
믿고싶었다.

그림자처럼  
찰라의 순간  
사라지는  
꽃처럼 몽롱하다.

꽃잎처럼  
피고 지는 건  
자연의 순리지만  
그속에 감춰진 나만의 영감

영화처럼  
담아 내는건  
손끝에서  
열매가 순간의 마술이 된다.

화려하고  
고운 노래로  
조화로운

화음이 저절로 온다.  
바로 너에게로 다가온다.  
스쳐가는 한편의 마술처럼...



| 일반부 |

## 따뜻한 우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 임은정

둘째 고3 아이가 독서실에서 늦은 귀가를 해서는 말한다. “엄마 나 우산을 개발해서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수능일이 가까워지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독서실을 오가는 아이의 뒷모습 한 자락에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요즘 뜬금 없는 아이의 한마디가 재미있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궁금하기도 했다.

아이는 집으로 오면서 문득 사람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 할아버지나 주변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이 수능 공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가능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무엇)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연결선 상에서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냥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아니면 없으면 매우 당혹스럽고 곤란하게 느끼는 물건이 뭔가하고 생각해 보니 바로 ‘우산’ 인 것 같다는 것이다. 맞벌이 부모라 어릴 때부터 아이가 혼자 챙겨 등교하는 일이 많았고 비가 와도 우산을 갖다 주거나 하교를 돕지 못했던 엄마라 미안한 마음이 커져 아이의 이야기를 더 공감하며 들어보게 되었다.

작은 핸드폰 하나가 수백 가지 기능을 대신하며 소멸되어 가는 생필품이 생기고 있지만 우산은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며 현대의 용이함을 극대화시킨 제품으로 개발하면 꼭 ‘대박 우산’이 될 것 같다고 수능이 끝나면 우산 개발을 시작해 봐야겠다고 한다. 아이의 나름 진지한 이야기에 그냥 비를 잠깐 맞아도 되고, 요즘은 지하도로도 잘

되어 있고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산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자 자신은 아주 작게 접히고 가벼운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따뜻한 우산을 팔 거라고 한다.

“엄마 우산은 진짜가 원래 따뜻한 거야...” 무슨 말일까? 초등학교 때 비를 맞고 집으로 한참 걸어 와 보니 비 오는 날이라 어두운 집안도 춥고 몸도 춥고 그러다 갑자기 눈물도 나고 더 추워져 우산이 원래 따뜻함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날을 생각하면 우산은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계속 남을 것이며 우리를 항상 지켜줄 따뜻한 우산이라는 감성 어필 광고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엄마로서 어린 딸아이에게 쓸쓸하고 추웠던 비 오는 날 기억을 만들어 준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과 함께 내 기억 속에도 빛나는 우산 하나가 있음을 떠올릴 수 있었다.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2살 터울 네 딸을 키우던 우리 집은 늘 우산이 부족했다. 원래 식구 수대로 우산이 없기도 했지만 동생들과 우산을 함께 쓰고 등교하는 것이 귀찮은 언니들은 비 오는 날이면 재빠르게 우산을 챙겨 먼저 등교를 해버리곤 했다. 그러면 우산이 없는 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엄마가 옆집 뒷집에서 낡은 우산을 빌려오기도 하셨다. 그러던 비 오는 어느 날 엄마가 언니들이 혼자 우산 쓰고 등교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으셨고 먼저 등교하기를 기다리길라도 했다는 듯이 혼자 남은 나를 데리고 빗속을 뛰어 제일 가까운 문방구로 데리고 가셨다. 비 오는 날 문방구 지붕 처마에는形形色색의 우산들이 걸려 우산 꽃이 만개한 풍경이 되곤 했는데 그중 가장 예쁘고 비싸 보이는 백조 모양 손잡이로 된 보라색 우산을 단번에 빼서 내 손을 잡고 펼쳐주셨다. “느그 아빠 몰래 엄마 부업했다 아이가...” 내 취향을 물을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그 문방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우산임에 틀림이 없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우산을 샀던 날을 다시 떠올려 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콩닥거리던 11살의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 생각지도 못한 둘째 아이의 우산 개발 이야기로 내 아이의 쓸쓸하고 추웠던 비 오는 날 하루와 가슴 뛰게 좋았던 내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하루가 만나는 날이

었다.

꼬박 1년 넘게 주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오가며 수험생 시절을 보내고 있는 둘째 아이가 새로운 우산을 개발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해내고 부자도 되겠다는 희망이 재미있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다. 나는 비록 어린 내 아이들에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제때 갖다 주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나의 엄마가 몰래 부업해서 사주셨던 그 보라빛 우산만큼이나 곱고 따뜻한 응원의 우산을 내내 나의 아이들 앞에 펼쳐주리라 다짐한다. 옷깃 여미게 되는 쌀쌀한 퇴근길, 고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앞에 누군가가 따뜻한 우산 하나씩 힘껏 들어주고 있으리라 상상해 보니 몸도 마음도 기분 좋은 녹진함이 밀려온다.



## 아버지와 검정우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오미선

그랬다. 그때의 난  
비 오는 어수선한 하룻길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비바람이 내 몸을 휘감아도  
아버지의 검정 우산 하나 나누어 쓰고  
서로의 겨드랑이 체온을 느끼며  
걷는 게 좋았다.

작은 나의 노란 우산은  
가슴 속에 품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이 좋았다.  
검은 우산은 나의 든든한 어깨가 되어  
아버지의 손은 나의 지지가 되어

그랬으면 좋겠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오늘 같은 날이면  
허연 머리 야윈 어깨라도  
밭고랑처럼 패인 주름진 손이라도  
검정 우산 쓰며 안아주는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다.





| 일반부 |

## 추석(秋夕)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 강근원

넉넉한 함지박에  
잘 익은 홍로 한 알과 누르께한 배 한 덩어리  
새벽녘 시린 달빛처럼 맑은 청주도 한 잔  
네 눈썹 닮은 송편도 두 알  
그 위에 가지런히  
노오란 보름달 하나 툭 깨뜨려 얹고 쓱쓱 비며 낸다.

우리 가족 꼬순내가 고샅길 고욤나무까지 너울거릴 때  
시나브로 떠 오른 보름달  
그윽한 미소 지으며 따뜻한 숨결을 내쉬고,  
보름달에 따스게 더워진 얼굴들이  
더 포근함으로 다가오는 오늘 밤

오래 살았던 그도, 짧게 살았던 그도,  
외로움을 잘 타던 그 사람도  
서로 마주 앉아 오순도순 오가는 따스한 눈길들이  
이윽고 우리로 이어줄 길을 만들고  
떠나 있던 그 사람도 오게 하는

The page features decorative illustrations of leaves and foliage in the top-left and top-right corners, rendered in a light, sketchy style. The main body of the page is a solid light gray.

오늘은

다만 달빛이 맑은 강물처럼 출렁거리고  
맑은 웃음이 한없이 철썩거리는  
깊은 가을 속, 잘 익은 보름달

2023

서곶지기들의 이야기

제28회 인천 서구 구민백일장

우수작품 모음집

발행인 정군섭

기획 서덕현

편집 유지인, 이도훈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cc.kr](http://www.inscc.kr)

인쇄, 출판 영진종합인쇄(032-425-2199)

---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